

부순정 질문

1. 혁신위가 설정한 6개 과업범위 중 강령개정을 못한 이유가 있는지?
2. 교육위원회와 필수교육 강화를 말했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지역정당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위원회 활동이 궁금하다
3. 정치전략으로 나온 부울경 탈핵, 제주 탈탄소 전략들을 하려면 풍력발전 등을 얘기해야 할 텐데 제주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10년 전에는 멋졌던 강령의 말들이 지금의 실현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괴롭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강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가? 제주를 탈탄소라고 표현하는 말에는 지역상황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한 것 같다.
4. 전국운영위원회가 전국위원회로 확대개편 된다고 했지만 오히려 위상이나 힘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거기서 과연 어떤 의제를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전국운영위원회가 가능한지, 당무위원회가 더 강화되어 전국위원회라는 형식적인 허수아비 조직이 만들어져 결과적으로 보다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다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이 있다거나 제주녹색당 차원의 혁신안에 대한 우려나 제안하면 좋을 사안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자.

김홍모

당대표와 당무위원회의 집단지도체제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간다.

신현정

현재 녹색당은 지역당의 운영위원장과 의제정치기구(기후정의위원회,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등)의 장들이 참여하는 전국운영위원회 체제이다. 당대표 당무위원회 체제는 직선으로 선출된 당무위원과 당대표가 당무를 실행하게 되고, 당무의 과업범위(논평 승인 등)는 혁신안 참조. 당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당대표 중 1인이 되는 것이 혁신안의 방향이다.

김홍모

당무위원은 직선으로 어떻게 뽑는지?

신현정

현재 녹색당의 당무위원 후보를 공고로 받고 있는 중이다. 기존에 당대표 선출하듯이 등록된 후보 중에 전당원 투표로 직선으로 선출한다.

김순애

몇 % 이상 득표한 사람들을 당무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인가?

신현정

그렇다

김홍모

당무위원회는 전국위원회와는 어떤 관계인가?

신현정

전국위원회와는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로 현재 개정안은 잡았는데 이에 관한 세부 당규가 개정되지 않아서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중이다. 현재 변경된 것은 전국운영위원회가 전국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 이번 당헌개정 투표로 변경됨. 전국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권한이 조금씩 다르다.

부순정

당무위원회가 뭘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조직의 예를 든다면?

신현정

다른 정당의 최고위원이 녹색당의 당무위원이라고 볼 수 있다.

서신심

당무위원회가 기존 정당의 최고위원회 같은 위상인 것이다.

부순정

그럼 그만큼 더 결정권이 많아지는 건가?

서신심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다.

신현정

(당무위원회가) 사실 굉장히 강한 조직이다.

부순정

당원들이 (직접) 선출했다고 해서 아주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현정

이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의 체제는 아주 민주적인가 라고 했을 때, 현재 체제는 지역당의 운영위원장들이 운영하는 체제인데 나는 녹색당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임기를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는 회의체라고 생각한다. 각 지역당마다 운영위원장의 임기가 각각 달라서, 전운위 위원들에게 그 동안 논의했던 과정과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됨.

서신심

전운위 멤버들의 임기가 서로 불일치하는 시스템을 바꾸고 보완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 없이) 당무위원회체제로 바로 변경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현정

녹색당은 지역당의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역당 안에서 지역당 운영위원장의 임기나 선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순애

나는 전국적으로 지역당 상황들이 생각보다 열악하고 각 지역당의 운영위원장이 전운위의 운영위원으로서 월 1회 전운위에 참석하여 당의 모든 것을 결정해 왔다. 그게 당에 큰 격변이 없을 때는 일상적인 것들을 무리 없이 결정해왔는데, 지난 총선과 같은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집중된 고민, 빠른 결단 등 정치적인 역량이 필요하지 않았다. 지금의 전운위 체제에서는 제주녹색당의 경우 공동운영위원장 체제이므로 운영위원장이 번갈아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맥락의 연속성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컸다. 안건을 충분히 숙고하여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상적인 상황에선 문제가 없지만 큰 정치적 해결 과제가 닥쳤을 때는 무능력하거나 무책임한 결정을 하게 됐고, 후에는 그 결정에 허점이 생겨서 재보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런 모습이 당원들에게는 일관적이지 않은 기구로 보여 뭔가 변화가 필요하단 생각을 하게 됨. 기존의 전운위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런데 과연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허약하고 각 지역의 당원들이 충분히 숙의, 토론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제대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추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일시적으로 내 놓은 안이니까 이걸로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당무위원회 제안은 일상적인 다른 정당과 비슷한 모습, 녹색당의 모습은 아니지만 한 번 해보고 아니면 나중에 바뀌도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치, 누구나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질 수 있고 누구나 민주시민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게 녹색당의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게 충분히 훈련되지 않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매우 허약한 것임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스템 강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이번에는 바뀐 당무위원회 체제를 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함.

서신심

강령 개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강령 자체에는 반대할 부분, 고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신현정

일단 강령에 대한 논의를 시작도 못했다.

서신심

강령을 그대로 인정하고, 강령에 근거해서 당헌이나 당규, 법규를 개정할 거라면 그 개정내용은 강령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혁신안이 아니라 반동적. 구체적으로 당무위원회 신설, 기존 정당의 최고위에 해당하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기구. 당무위 신설을 제안한 배경은 충분히 얘기가 됐다. 지역당의 연합으로서의 녹색당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권한과 책임에 문제가 있어 당무위를 신설한 건데, 이건 기존 정당의 방식, 일사불란하고 위계적으로 움직이는 방식. 녹색당은 반정당의 정당이고, 기존 정당을 답습하는 방식을 추구하지 않는다. 지역당들의 평등한 관계를 추구함. 느리고 답답하고 잘 안굴러가는 게 녹색당의 방식, 그럼에도 그것을 유지하는 게 녹색당의 정신이고 강령에 그게 담겨 있음. 그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뭔가 일사불란하게 빠르게 속시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선거전략도 일사불란하게 위계적으로 짜서 원내진입을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면에 집중한 결과 이런 당헌 개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무위원회 신설이라는 당헌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반동적이다.

반녹색당 적이라 생각함. 당헌개정 투표 중일 때 투표를 보이콧하고 있었다. 투표 보이콧을 주장하면 내부 분란으로 보일 것 같아서 잠자코 있었지만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한다. 투표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겨우 50%를 넘겨서 그 중 90몇프로가 찬성을 해서 통과가 돼버림. 지금은 일단 이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당무위원회 신설하여 기구운영할 수밖에 없음. 지금이라도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투표에 의해 개정된 부분 말고, 정치전략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고쳤으면 좋겠다. 대표적으로 “민주화 세대 이후의 민주주의” 이런 표현 그대로 혁신안에 남았다

김순애

최종 혁신안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 혁신안을 보면서 얘기하자.

신현정

최종안에는 “권력화된 민주화 세대”

서신심

권력회탄 민주화 “세대”라는 표현이 여전히 있고, 혁신안 방향 자체에 또 1번으로 나와 있고 “민주화 세대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이 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말과 “민주화 세대 이후의 새로운 정치 지형”은 완전히 다르다.

신현정

투표 보이콧에 관해서는 그때 얘기했어도 괜찮았을 거라 생각한다. 녹색당에서 투표 보이콧 운동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총선 과정 안에서도 있었다.

서신심

그렇다.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다. 투표 보이콧 있었지만 투표시간을 연장시켜가면서 결국은 통과시켰다.

신현정

투표기간 연장은 녹색당의 선관위 소관이다. 당규상 투표율이 미달되면 투표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있다.

서신심

아무리 보이콧을 했어도 총선 때와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 뿐이고, 절대로 관철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던 것.

신현정

총선 때 (선거연합 찬반을 묻는) 투표 보이콧이 반란이나 반동처럼 비춰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녹색당의 창립 멤버혹은 지도부, 정책위원장이었던 한재각님도 보이콧을 주도하셨고 열심히 하셨다. 그런 부분을 반란으로 치부하는 것은 녹색당의 문화는 아니어서 이번 혁신안 투표를 보이콧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전한다.

김순애

혁신안 최종본 31쪽 과제를 보면 정책위원회 부문별위원회 강화와 풀뿌리 정치지원단 그리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그 내용이 여성과반제를 사회적 의제로 삼고, 평등문화 리더십,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등 계속 수정이 되면서

서신심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최장집의 언어를 그대로 쓴 거다. 그 용어 그대로 썼다면 그것도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자인 최장집의 언어를 그대로 쓰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민주화 “세대” 라는 용어를 쓰는 것과 그냥 “민주화” 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차이가 아주 크다.

신현정

세대 같은 것도 지금 녹색당이 직면한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대로 어떤 것들을 분류하고, 그런 정책에 대해 나 역시 비판적인 입장. 지금은 나도 청년 세대로 불리고 청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나의 안정된 고용을 보장해주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 세대론에 대해 양가감정이 있다. “청년팔이사회”라는 책도 나왔듯이 세대론이 결국 팔이로 가고 내부의 차이를 단일화 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대가 계속 정치 과제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당은 어떻게 직면할 것인지, 지금까지 녹색당 안에서 충분히 이뤄진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리더십 갈등도 기존 권력과 신생권력의 충돌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2020여성출마프로젝트 등에서 기존의 소외계층, 청년 정치인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녹색당이 많이 했고 한편,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도 했다. “젊은 생각 다른 정치” 녹색당의 슬로건. 젊은 생각이 왜 다른 정치인가, 이런 얘기는 나오적 없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사용해 왔다.

서신심

거기서부터 잘못됐다고 본다. 진보정치는 전혀 세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 ‘세대’라는 말을 녹색당에서 쓴 것, ‘2030여성정치인발굴 프로젝트’ 이런 것 자체도 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물계급적인 용어이고 계급모순 자체를 덮어버리는 부르주아적 용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대’라는 용어 자체는 아예 절대 쓰지 말아야 하는 녹색당의 정치 언어의 지침라고 생각한다.

신현정

한편으로는 이 언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기 이전에 누군가 이 언어를 꺼내서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 혁신위는 일단 그 정도의 역할은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이게 꾸준히 토론이 되어야 하지 녹색당의 깃발을 흔드는 그런 혁신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당원들이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했을 때, 녹색당의 언어가 완성된다고 보고 녹색당의 정당론은 아직 구성되고 있다고 본다.

서신심

혁신안 방향 9가지로 정리한 것은 최종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인가?

신현정

최종안이다.

서신심

혁신안 방향 9가지 거기 1번에 “민주화 세대”라는 용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9개 안을 되풀이해서 여러 번 읽어봤는데 방향 자체가 강령에 위배된다고 느낀다.

신현정

녹색당의 강령을 건드릴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글로벌 그린즈의 강령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라, 다른 정당의 강령들과도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풍부한 강령이고, 반정당의 정당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반해야 할 정당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것을 반한 정당의 모습은 무엇인지, 정당은 무엇인지 이런 논의들이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석하는 방식이 지금 다 다르고, 이 다른 의견들이 리더십의 부재 등의 이유로 계속 튀어나오고 올라오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었고, 우스개소리로 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해야 하는 정도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다시 모일 이유가 없다 녹색당은. 해산하더라도 다시 모일 이유가 없다 지금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혁신위가 녹색당의 비상상황에서 출범했고, 단순히 다른 정당처럼 선거가 망해서 출발한 게 아니고 정말 리더십이 하나도 없고 존폐가 달려있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출범되다 보니, 이 안에서 과도한 관심이 쏠려 있고 기대와 우려도 많은데 혁신안 혁신아이고 혁신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혁신안의 내용에 대해서 제녹당 안에서는 이제 토론이 조금씩 터져 나오는데, 왜 제주녹색당은 항상 이렇게 조금 늦게 토론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총선과정에서도 제주녹색당의 논의가 굉장히 늦었고, 전국당의 정보를 제녹당원들이 충분히 시간에 맞춰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왜 지역당의 시간은 다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순정

다른 지역당의 현실을 보니, 옆집 일처럼 놔둘 문제가 아니었는데 옆집일 지켜보듯이 지켜봤단 생각이 든다.

김순애

어려운 것이, 지난 선거를 거치면서 제녹당 운영위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제주지역 상황에만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충분히 집중해서 보고 충분히 토론해서 집중된 안을 가지고 운영위원장이 회의에 참여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전국의 이런 상황들이 너무 복잡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일이라 그 모든 것을 다 해가면서 지역의 고민을 같이 해나가기가 운영위원들이 힘들다. 제주 운영위도 한 번에 4시간 이상 하는데, 그 시간동안 전국의 상황, 제주상황을 다 논의하기 벅겁다. 현재 전문위 단톡방에서 바뀐 당헌에 따라 당규 개정으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안정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지역의 운영위원들이 논의를 다 쫓아가면서 논의를 선점하기가 버거운 일인 것이 현실. 이런 현실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반영한 구조는 무엇인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전국의 당원들이 이 핵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책임있는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모든 논의들에 집중하기 쉽지 않다. 논의를 충분히 이해하기도 어렵다. 현재 당헌, 당규를 둘러싼 갈

등 상별위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쟁점들을 따라가기 어렵다. 중요하게 토론해야 할 점들도 있다. 녹색당은 젊은 청년 정치를 많이 얘기하는데, 신심님은 청년 정치가 아니라 좀 더 계급적인 언어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녹색당에서 좀 더 토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반정당의 정당이라고 했을 때, 정당이라는 구조를 무시하는 게 반정당의 정당이나, 아니면 기존의 권력을 가진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폐해들을 하나하나 부정해나가는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녹색당이나. 반정당의 정당, 도토리들의 누구나 자율성이 존중되고 누구나 꿈꾸고 차별 없는 이런 언어 안에 우리 현실 안에 닥친 책임 있는 행동과 선택들을 가려버리고, 그냥 좋은 말만 하고 끝내버리고 실행은 담보되지 않는 게 녹색당의 지금까지의 역사였다고 생각한다. 보다 현실을 인지한 현재는 현실과 이상을 어떻게 접합할 수 있을지 구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고은영

두 분 말씀에 많이 동의한다. 제녹당 당원의 날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90% 찬성으로 당헌 개정이 통과가 됐고 당무위원회 공고가 났다. 어쨌든 당무위원회 체제로 전환됨. 제녹당 운영위에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제녹당 운영위원회 체제는 어때야 하는가. 당무위원회라는 새로운 녹색당 체제 안에서 지역당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정님 말대로 연임하는 규정이 다 다른데 지역연합체로서 사실상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 지역당이 못 받쳐줬다, 라는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변화한 상황, 당무위 체제에서 제녹당은 어떤 리더십 체제로 가야 되는가, 이에 관해 당원들의 토론이 필요하다. 그 경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음 총회 (아마도) 내년 2월에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 체제에 대해 결정지을 수 있는가, 그때까지 어떤 토론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싶다. 또한 정치노선이나 이런 것들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보군들은 이전에는 여성, 트랜스젠더 등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목받았다면 이제 2022년에 당원들이 추대해야 할 후보는 어떤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런 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당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치노선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담론 토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대적으로 우리와 정서적 거리가 먼 전국당의 혁신안에 대한 검토는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현재 제녹당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지금까지 해본적 없는 운영위원장 직선제로 가야 할 것인가, 지금은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자원을 하거나 호선을 하는 형태인데, 직선제를 하는 것은 우리의 강령에 맞는가, 현재 운영위원이 10명이 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논의를 단기간, 3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명완

선거전략이나 2022년도에 관해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 이번에 우리 총선에서 우리의 프레임은 무엇이었나 반성을 안 했던 것 같아서 아쉽다. 원내진입을 위해서는 우리당이 대중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정당이 대중정당으로 일반 유권자들에게 대중정당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대중성 확보를 위한 선거전략을 가질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원내진입 목표, 도의원 목표로 해봤자 현재 체제로 해서는 100% 안 된다. 비관적으로, 반성을 해 봐야 한다. 나는 계속 이를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데, 이제 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른 정당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은 프레임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당의 목적과 대중성 확보를 위해서 갈 수 있을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토론하고

차후에 3개월 후라든지, 전략을 머리 싸매고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부순정

조직의 현실도 보고, 선거도 코앞이긴 하나 대중성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취약이 아닐까. 실제
도 없고, 핵심 인재도 없는 상황에서 선거에 목매서 대중성을 쫓아가면 뭐가 되는 거지? 이미
지 정치를 하자는 것인가 이런 걱정이 먼저 든다.

김명완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니고, 항상 우리는 원내진입을 목표로 하지 않는가?

부순정

(원내진입이)목표인데, 현실을 보면 첫발은 무엇이어서 하는가, 하는 고민이 든다.

김명완

원내진입을 목표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고민을 해야 한다)

서신심

참 답답한 게, 이를테면 독일이 70년대에 원내진입을 했을 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이런 제
도가 있어서 가능했다. 우리의 선거제도에서는 녹색당의 원내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현정

(지난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했는데 연합정당이라는 변수가 생긴 거죠.

서신심

그게 완전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이상한, 편법적인 이상한 제도이기 때문에 선거
제도 자체가, 그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선거제도가 이런 상황에서 원내진입은 불가능
한데 선거제도 개혁 운동에 여전히 매진을 해야지, 원내진입을 목표로 하는 것 자체가 패착이
라 생각한다.

신현정

녹색당은 2011년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계속 활동해왔고, 지난 총선까지 선거제도 개혁
은 목표였고, 개혁이 되고 나서 원내진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연합정당이라는 변수
를 계산을 아무도 못했다.

서신심

(선거제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개혁되지 않았다. 비율과 이런 것들이.

김명완

2022년도 지선에서 선거제도가 바뀔 것이다. 바뀔 수밖에 없고, 도의원도 비례정당명부로 해
서 아마 할 거다. 도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인트로 잡고 앞으로 우
리가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신심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바뀌지는 않는다. 그것을 전제로 한 원내진입을 얘기해야지, 그것은 쪽 빠진 채로 원내진입을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

신현정

신심님 생각으로는, 녹색당은 선거제도 개혁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을 녹색당의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인가?

서신심

그렇다. 그거 해야 하고, 그것을 전제한 후에, 개혁될 경우에 원내진입을 위한 선거전략을 짜야 한다.

신현정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당원들이 좋아할까? 녹색당이 선거제도개혁을 한다 했을 때, 녹색과 선거제도 개혁은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부순정

원내 진입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

서신심

(선거제도 개혁운동계속 설득력을 가져가야 한다

신현정

그것(선거제도 개혁)을 제1과제로 삼았을 때 녹색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서신심

원내진입만을 목표로 했을 때 반발할 가능성 또한 동시에 있다.

김순애

원내진입부분은 앞으로 총선은 멀었고, 지선 토론을 하면서 제주지역당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토론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부순정

혁신안 토론은 계속 될 것이므로, 다음에 이어가는 것으로 한다.

(쉬는 시간)

김순애

혁신안 토론에 대해서는 오늘 어디까지 얘기할 건지? 쟁점되는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할 건지 아니면 이정도...

부순정

시간상 (오늘은) 이정도에서 마칠 예정이다. 다음에 토론을 이어가는 걸로.

김순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했던 수준 이상도 아니고 (아쉬움이 있다)

신현정

아까 보셨듯이 당력이 없고 당세도 없다. 연합정당 같은 제의를 받은 것도 2018년 지선에서 녹색당이 굉장히 성공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서 사실 득표율에서 크게 실패를 했고 당세도 없고 당력도 엄청 없는데, 조직의 기본은 조직의 기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일테면, 내가 당원이면 당비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신입당원이 있으면 신입당원 연락을 받아서 여기 나올 수 있게 하고 당원들이 더 말할 수 있게, 더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본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사실 혁신위 활동을 할 때만 해도, 다음 선거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힘이 경합하고 결집하는 계기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은 기본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홍모

기본이 무엇인가?

부순정

아까 말한 거. 당비가 제대로 잘 나갔는지, 신입당원들은 연락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신현정

진짜로 당원들이 어쨌든 당의 기본인 건데, 당원들도 많이 빠진 상황이다. 탈당을 막고, 이런 것들이, 조직 회복이 제1과제인 것 같다.

부순정

제녹당이 탈당하는 당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탈당한 이유를 확인해보고 했는데,

신현정

이것도 제주는 하고, 안 하는 지역들도 있다. 못하는 거다.

부순정

(탈당 이유를 확인하면서) 느낀 점이 뭐였나? 은정님. 전화 제일 많이 하신 분. 그게 기본이긴 한데, 같이 가야 한다. 그런 활동과 전체 구조 짜고 내용 짜는 것들이 같이 가야 하는데, 우리는(조직팀) 공회전 하는 기분이었다. 연락은 연락대로 열심히 하고 그분들도 열심히 받지만 짜증이 났다. 녹색당 상황을 우리보다 더 많이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았다. 우리는 우리대로 관리한다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한은정

입당이든 탈당이든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확실히 일어난다. 지금은 입탈당이 없다. 우리다 당원들을 더 모으고 싶다고 하면 선거 때뿐만 아니라 꾸준히 이슈를 만들고 의제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또 하나는, 당연한 건데 교육 문제, 지금 자연보호만 하고 싶어요, 성소수자는 저랑 안 맞아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다양한 의제를 갖고 있는 게 녹색당이라는 걸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당했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나가는 일도 많다. 나가는 사람이 30명인데 그 중 3-4명이 그런 이유로 탈당한다면 사실 많은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CMS 해지하거나, 탈당은 하고 싶은데 말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의사를 밝힌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들(녹색당이 다루는 특정 의제와 생각이 다른 이유로 탈당)도 있고, 당장에 총선 등 이슈 있을 때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다섯 명 나가지만 한 명 들어오기도 한다.

김순애

계속 나왔던 얘기 중, 지금 어떤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고 후속 토론으로 이어질 텐데, 지난 총선 평가도 정확히 매듭이 안 됐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지금 모인 당원이라도 한마디씩 얘기는 듣고 싶다. 이번 혁신안 투표 결과, 당무위원회가 굉장히 중앙집권화 되고, 권력 집중화 되는,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앞으로 제녹당의 집행과 운영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다른 분들도 얘기해주시면 향후 토론을 셋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김홍모

조직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해봤다. 이번에 생겼던 사태가 체계의 문제였나, 그게 핵심이었나,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녹색당에 입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필요성이었다. 녹색당이 내 삶에 필요한 거 같애, 그래서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난 선거과정에서 녹색당이 부끄러워졌다. 이건 뭐 필요한 것도 모르겠고. 그 싸우는 과정들이 너무 창피했다. 그 폭력적인 언어들과 그 편협한 언어들과 기타 등등. 주장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주장은 백이면 백, 다를 수 있는데, 그 주장을 이야기하는 태도들이 너무 녹색스럽지 않았다. 평화적이지 않았다. 당무위원회 체계만 놓고 봤을 때는 순애님의 의견에 공감한다.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실험을 해보자.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내서 밀고 나갈 것인가, 어떻게 당원들과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가 중요하다. 녹색당은 이래서 정말 필요해. 이 시대에, 이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가 안 보이는 시대에 녹색당은 정말 있어야 돼. 이런 감동과 지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 제주도는 일정 정도 그런 활동을 계속 해왔기에 당원들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당원이 활동했던 것 같다. 내가 녹색당 탈당을 안 한 이유는 제주도녹색당 때문이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제주도를 위해 활동하는데 어떻게 탈당을 하나? 그러나 녹색당 중앙(전체)를 봤을 때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당인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철

오늘 나온 이야기 하나하나들이 다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자리들이 더해지면서 논의가 될 것 같다. 아까 혁신위원 신현정님도 말씀하셨는데, 후원회원으로 있다가 지난 1년 전부터 녹색당에 함께 하게 됐는데, 지금의 내가 보기엔 녹색당의 찬란한 강령이나 당헌, 당규에 좋은 말들

다 들어 있는데 그건 그거고,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저희 당원들, 홍모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당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생각이 다 다른데, 실질적으로 그 당원들이 움직이는 건데, 우리에게 어떤 착각이 있다고 생각한다. 녹색당에 들어오거나, 녹색당에 눈에 띄고 하면 기본적인 태도나 관점, 녹색당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우애와 낙관의 태도들이 마치 잘 탑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인 듯한,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체크가 되거나, 지내면서 아는 것이지, 녹색당원이 되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녹색당원이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녹색당에 대한 DNA나 견해에 대한 적어도 동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제녹당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신입교육이나 허들이 낮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당의 활동들, 크고 작은 이벤트들, 선거 등 굵직한 이슈가 있으면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상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편하게 가질 수 있는 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 제주에 너무나 중요한 이슈나 현장들, 난개발 등 굵은 전선들이 있고 도청 앞을 비롯해서 당연히 녹색당의 몫인데, 그것 외에도 녹색당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 신입당원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대한 고민이,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다.

김순애

당무위 체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김철

체제에 대해서 2분만 짧게 말씀드리겠다. 녹색당은 어쨌든 공당, 대중정당을 지향하고 있는데 내가 녹색당에 미력하나마 남아 있는 이유는 요원해 보이긴 하나 집권이다. 쉽게 말하면 지난 총선에서 정말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이번에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녹색당에 가입해서 이려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저쪽으로 한걸음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정책이든 제도든 이쪽으로 조금이라도 견인을 하는데, 한 손이라도 보태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아까 신심님 평소에도 늘 지적해주신대로 우리가 현실적인 전략정치를 논할 때 거기에 매몰된 나머지 우리의 근본적인 DNA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당연히 유효하고 중요하다고 동의하는데, 그 간극이 큰 것 같다. 어디다 방점을 찍는 지. 기존 방식으로 2011년에서 8년이 흘렀는데 그 와중에도 흐름이 있었겠지만 이번에 어쨌든 된 것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다시 협의를 통해서 바꾸려고, 이러려고 녹색당이 있는 것이니까. 된 거는 또 해보면 어떻게 생각한다.

반연경

일반당원인 나로서는 전국운영위원회, 당무위원회의 변화가 사실 체감은 안 된다. 그 전에는 체감이 안 됐기 때문에 바뀐 게 어떻게 작동할지 예상이 잘 안 되고, 신심님 말씀대로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 형태가 되었다고, 성격을 그렇게 규정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나에게 어떻게 와닿을지는 전혀 예상, 예측이 안 된다. 그만큼 위에서 어떤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에 나와는 무관하게 작동했다고 할 수 있겠다. 나와 같이 지내는 당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제주녹색당 안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같이 하게 된 지 얼마 안됐지만 하면서 느낀 점은, 아무리 운영위원회의 형태가 이렇고, 공동운영위원장 제도가 있고 평등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의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그렇게 작동하는 가는 별개의 문제,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풀뿌리가 살

아있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이 있고 선출직이 있는데, 선출직 몇 명을 제외한 당연직은 의제모임의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형태인 거고, 이게 민주적이고 평등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의결기구가 되려면 이 의제모임들이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도가 직선제가 되든 아니든, 바닥의 풀뿌리가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 그걸 강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런 제도가 의미도 없고 무력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순애님 말씀에 동의하는 측면은, 계속 실험해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길을 찾는 게 우리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정답은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문제가 되어서 비효율을 개선하고 혹은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심님이 비판하신 지점은, 이게 당의 성격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한 걸로 보는데, 난 그렇게까지 간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제도적인 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현정님 말씀대로 당력도 없고 당세도 없고 해산하면 다시 모일 이유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 뭐라도 해보면 되는 거다. 비자립로 싸움도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지 않나? 그럼 점에서 일단 바뀐 제도 안에서 민의를 담는 게 중요하지 제도 자체가 큰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서신심

간단히 덧붙이자면, 당무위원회 신설이 강령에 위배된다고까지 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다 통과된 거라서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걸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의미 없고, 제녹당이 지역당으로서 자율성이 있고, 지역당의 연합체이니까 중앙은 그렇더라도 제녹당은 당무위원회 스타일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게 나의 의견. 나와 같은 50대 당원 중에도 제녹당도 공동운영위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리더십을 갖추게 하자.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런 식으로 차기에 바꾸지 않으면 탈당을 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거기에 반대를 하는 거다. 지역당의 자율성이 있으니까 제녹당은 가장 보통의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이 정신을 아무리 갑갑해도 고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제녹당 내에서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할까에 부분에 있어서 나는 기존 것을 고수하고자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그런 분명한 입장이 있다는 전제 속에서 차기에 토론을 했으면 한다. 아까 전국 차원에서는 민주화 '세대' 라는 용어를 빼야된다는 얘기를 했다. 그것은 투표 사안이 아니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제녹당 입장으로 전국위원회에다 내놓을 수 있지 않나. 그것을 내세워서 '민주화 세대'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기, 모든 걸 세대 문제로 바라보지 않기, 이부분을 제녹당의 입장으로 정리해서 표현했으면 한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제녹당 안에는 없다고 본다.

김순애

아까 크게 논의했던 것이 많다. 당무위원회 개정, 정치전략 안에서 민주화 세대 부분. 민주화 세대 이후의 민주주의가 조금 더 완화된 표현으로 최종 정치전략 으로 나오긴 했으나 좀 더 심도 깊게 계급과 세대 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후토론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심님이 주장하듯이 제녹당의 이름으로 민주화 '세대'라는 말자체를 빼자는 우리의 책임 있는 언어로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

부순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서로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는 정도가 서로 달라서, 공감하는 자리가 다음 토론회에서 회의 안건으로 넣어서 같이 얘기를 해본 후에, 꼭 입장 발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있을 테니 그런 방법으로 한 번 더 설득해보면 좋겠다. 세대문제는 나도 들으면 들을수록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느껴진다.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말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다. 그런데 다음은 언제인가?

서신심

시간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전국당의 시간과 지역당의 시간이 (다른).

부순정

다음 운영위원회인지, 또 이런 자리(당원의 날)인지

김순애

아마 대표단 선출은 좀 늦춰지긴 할 건데, 운영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토론이 차기 총회에서 내년에 우리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당원의 결정을 통해 직선제로 갈 건지, 현행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가가 남아있고, 지난 선거 과정에 있었던 문제들, 선거연합, 중간에 선거제척이 변경되는 문제 등, '아멩이나 골아보자'에서도 다 털어보자 했지만 핵심들,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토론이 안 됐었는데 그런 것들 (도 토론이 필요하다).

서영표님이 제녹당의 지난 역사에 대해 평가한 초고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 선거와 천막당사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텍스트로 한 토론 계획 중이고, 내년에는 선거에 대한 토론이 제녹당 안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2022년 지선이고 한편으로는 진보진영의 단일선거가 제안되고 있어서 당 내에서 토론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총회 전에는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할 것 같고, 정치 의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갔으면 좋겠다. 운영위 안에서 셋팅해서 알리겠다. 한 달 안에 다 되긴 어렵고, 한 달에 두세 번 토론하면 피로한 당원도 있을 것. 세대 문제 등 의제문제는 제주지역 현안과 함께 이야기될 수 있기도 하고 추상적인 언어로 토론될 수도 있고 하니, 토론계획들을 당원들에게 어느 시기까지 알려주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서신심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부순정

그 사이에라도 느끼는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카톡방 등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은정

신심님이 혁신위에 직접 얘기도 하셨고, 현정님과도 얘기를 많이 하셨고 피드백 자체는 많이 받으신 것 같다. 혁신위에 직접 얘기하신 거는 운영위원회 내에서도 토론이 힘들고, 과부하가 있어서 직접 소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난 혁신위 온라인 토론회에도 직접 오셔서 말씀 하셨다. 나는 이게 민주화 세대라는 말이 남아 있고 혁신안도 이렇게 됐으면 이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혁신위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3개월 동안 6개 과제를 하는 것도 무리한 일이었고 개인적으로 그 중에 한두 가지 과제만 했어도 혁신위는 충

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런 문제제기를 줬고, 세대라는 문제가 계급을 부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87년 이후 시대가 이렇게 됐고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 그 세대 문제를 절대 (얘기) 해서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서신심

토론회 때 '민주화 세대와 결별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누구랑 결별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부순정

약간 해석의 문제가 있다.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자리일수도 있고, 회의 안건일 수도 있는데 여러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각자) 느끼는 감각에 대해서.

서신심

그런 불분명한 언어를 정치언어로 쓰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지 않나.

한은정

이 언어들에 확실해서 쓰는 언어는 없다. 슬로건이라는 것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생각했다. 녹색당다움은 정책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다. 그 난리를 친 와중에서 만들어진 혁신위가 열심히는 했으나, 완벽한 안을 낼 순 없다. 문제제기를 던지고 이정도까지 정리한 것에 대해 의미를 뒤야 한다, 3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심님이 제기한 문제들은 지금 (제주)녹색당에서 토론회서 올려서 바뀔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다. 그렇게 할 거였으면, (신심님이) 문제제기 하셨을 때 내부에서 토론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우리가 토론이 될 만한 수준이 안 되든, 관심이 없든, 역량이 없든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됐고, 지금까지 피드백을 받으셨고, 저희도 그걸 듣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고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하지, 신심님께서 요구하셔서 제녹당에서 이런 얘길 제출하자, 이런 건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순애

혁신안은 차기 리더에게 참고로 제출되는 것이다. 혁신위의 정치전략은 새로운 대표단이 꾸려진 후 상황에 따라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때 조금 더 그런 논의를 조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제주지역 상황에서 차기 선거와 관련된 정치의제와 정치토론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짧은 시간 내에 정치전략들이 마련됐으니, 이에 대해 후속적으로 세대문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세대교체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전당원 토론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안해볼 수 있지 않을까

부순정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신심님의 고민을 나눠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듣는 거에 멈추지 않고,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토론이 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의견을 더 제출해볼 책임을 가지게 된 거니까.